

# 주 일 예 배

2019년 11월 10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b>219장</b>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현종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b>약 5:7-11(James)</b>	인도자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b>“인내를 배우라” “ Learn Patience ”</b>	이규본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b>260장</b>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 금주의 말씀

(11. 10. 2019)

본문: 약 5:7-11

제목: 인내를 배우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약 5:11)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는 자가 큰 사람이요, 못 참는 자가 작은 사람입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딤후 2:2, 갈 5:22).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의 영혼이 언제나 매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믿음 생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겹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배워야 합니까?

### 1. 인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종말론적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7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8절)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9절) 라고 말합니다.

둘째, 소망적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역입니다. 셋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넷째, 표본이 있는 인내입니다. 농부와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7,10,11) 성경은 인내의 모본을 보여줍니다. 인내의 결과도 보여 줍니다. 인내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마 24:13).

### 2.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7)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장기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에 입각한 기다림입니다. 그의 눈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믿고 기다립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것이며 결국 이 죽은 들판에 귀한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난 열매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달려 나가면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 3. 옴의 인내를 배우라

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붙든 사람입니다. 영의 일에 열성인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옴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뿌렸지만 영육 간에 모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연단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더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세우려고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1월 헌금송:** 11/10: 바나바선교회 11/17: 에스더선교회
-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11/24(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 초청할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은 11/28(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약 5:7)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德目) 중 하나가 ‘인내’이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행함의 덕목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믿음의 실체는 ‘인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이다.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내’이다. 즉 믿음의 실천 덕목 1호가 인내인 것이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가?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기도 한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랑과 봉사는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는 스스로의 인격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봉사는 돈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사랑을 함에도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돈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인내는 어떤 경우에도 밀전을 필요로 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인내에 관한 한 ‘못했다’라고 말 할 수 없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든가, 마음은 있으나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내는 돈 없어서 못참았다 라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것이다. 우리는 ‘인내’가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내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다림’이란 단어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졸아서 유무상통한 것만이 아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곧 오심을 믿음으로 저들은 더는 물질 가지고 있을 필요도, 더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뿌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 시작된다. (11102019)

2019년 기도제목

-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후 4)
-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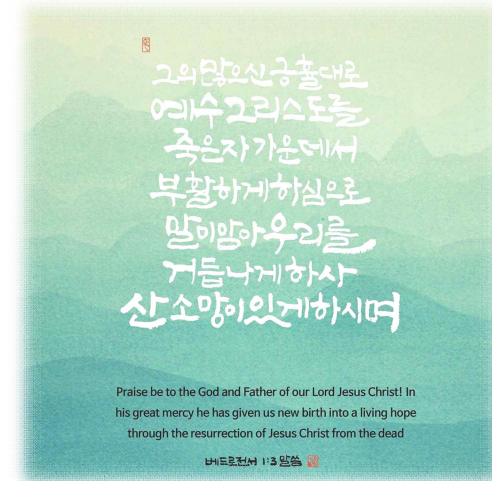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 현종영
- \*교육전도사 : 최화숙, 전행복(EM)
- \*전도사 : 박휘영, 한우연
- \*장로 : 안석원                    \*권사 : 이재숙
- \*안수집사 :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 김명애                    \*반주 : 서난숙
- \*찬양대 :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안인예수교장로의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